

Research Article



해외 소비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식품선택 동기 분석: 미국 및 일본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서현 , 유재윤 , 이민아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nalysis of food choice motivation according to health consciousness of overseas consumers: focus on American and Japanese consumers

Seo-Hyun Lee , Jae-Yoon Ryoo , and Min A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02707, Korea

OPEN ACCESS

Received: Jun 1, 2020

Revised: Jun 22 2020

Accepted: Jun 25, 2020

Correspondence to

Min A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Tel: 82-2-910-5745

E-mail: malee@kookmin.ac.kr

© 202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CID iDs

Seo-Hyun Lee 

<https://orcid.org/0000-0003-3440-0275>

Jae-Yoon Ryoo 

<https://orcid.org/0000-0002-7219-8058>

Min A Lee 

<https://orcid.org/0000-0001-7479-9888>

Fundi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Sempio Incorporated.

Conflict of Interest

There are no financial or other issues that might lead to conflict of interest.

ABSTRACT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health interest of consum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us understand the motivation of food choice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country's strategy based on healthy and correct food choices in the future.

Methods: A customer survey was conducted in 2019 from October 18 to 31, and it targeted 115 American and 120 Japanese local consumers between the ages of 20- to 64-years-old. Eight questions were formed using General Health Interest. Based on food choice motivation, 27 questions were reconstructed and asked about demographic information. All data were analyzed by SPSS Statistics (ver. 25).

Results: Health consciousness was categorized into 2 types: nutrition-seeking type and preference-seeking type. Based on these 2 factors, customers were grouped into 3 clusters: healthy dietary life-seeking group, nutrition balance-seeking group and health indifference group. Food choice motivation was categorized into 4 types: health, efficiency, value, and mood. All 3 groups showed a high tendency for efficiency in common. The results show that consumers want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time and money invested in food consumption. It is believed that the focus and investment of market segmentation strategy should be focused on product development, especially for American and Japanese consumers who are interested in health.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flect consumer needs that can assist in the selection of healthy and correct foods in the future.

Keywords: health interest, food choice motivation, market segmentation strategy, American consumers, Japanese consumers

서론

최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는 식품시장 전반에 걸쳐 보존제나 색소 등의 인공 첨가물 사용 감소와 유기농 식품, 그리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선호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흐름은 저나트륨과 저칼로리 식품, 비건 식품 등의 프리미엄 식품군이 새롭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2].

소비자의 요구가 이처럼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2] 식품선택 동기는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점차 복잡해지는 이러한 식행동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측정도구로서,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거나 선택 혹은 섭취하는 이유와 동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건강, 분위기, 편의성, 감각적 소구, 가격, 체중조절, 친숙함, 천연성분, 윤리적 관심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이를 적용한 연구에서 건강이 주요 식품선택 동기인 소비자는 유기농 식품 등과 같이 건강지향적 식품에 대한 구매행동을 보여주었으며 [5-7], 이들 소비자에게 건강 요인은 구매의도 및 식품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8].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예측함과 동시에 식습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건강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활 향상 및 개인과 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9-11].

건강관심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는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려는 욕구가 다른 소비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12]. 개인의 건강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학력, 교육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특히 여러 연구에서 성별과 건강관심도가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5]. 그러므로 소비자 그룹에 따라 건강관심도는 다를 수 있으며, 건강관심도에 기반한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의 식품 소비 동기 및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6-18].

한편 건강관심도가 유기농, 친환경 식품과 같이 특정 식품에 대한 구매행동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15-18] 건강관심도에 근거하여 소비자 그룹의 식품 선택에 대한 구매동기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식품선택 동기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있어 잠재적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측정도구 중의 하나로서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유럽, 그리고 뉴질랜드 등의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국가마다 주요 식품선택 동기가 다르게 도출되었는데, 특히 유럽과 뉴질랜드의 소비자는 감각적 소구가 가장 높은 동기로 조사되었다 [19-22]. 스페인 소비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천연 성분과 건강 요인 2개의 요인이 1개 요인으로 나타났고 [23], 세르비아 소비자는 기존의 9개 요인 중 편의성이 준비 편의성과 구입 가능성으로 세분화되는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19]. 이처럼 식품선택 동기는 각 문화별 선호하는 요인과 요인의 특성이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식품 구매 행동과 소비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적합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2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히 채식주의자 등 건강 식품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되어 있는 미국과 평균 수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 중의 하나인 일본 시장을 타깃 소비자 그룹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식품선택 동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국가의 외식시장 진입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소비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식품선택 동기 분석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구매행동에 미숙하며 소비에 있어 아직 교육이 필요로 하므로 [25] 구매행동을 분석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소비자 조사는 미국 뉴욕과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기 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40명의 조사 대상자 중 미국과 일본 각각 12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성실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응답 5부를 제외하고 미국 115부, 일본 120부 총 2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설문 도구는 관련 선행연구와 학술문헌 및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일반사항 7개 문항 (국가, 성별, 연령대, 교육 수준, 직업, 결혼 여부, 가족 구성원)과 Roininen 등 [13]이 개발한 General Health Interest를 기반으로 한 8개의 문항과 Steptoe 등 [3]이 개발한 Food Choice Motivation에 근거하여 27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건강관심도와 식품선택 동기는 리커트 7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 KMU-201909-HR-216)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 25.0; SPSS Inc.,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건강관심도와 식품선택 동기는 기술통계 (descriptive analysis),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통하여 크론바 알파 (Cronbach's α)값으로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였다. 건강관심도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위하여 요인점수를 이용한 K-평균 군집분석 (K-means 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χ^2 검증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식품선택 동기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함께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미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15명 (48.9%), 일본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20명 (51.1%)였으며, 남성은 77명 (33.6%), 여성은 120명 (65.5%)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20-29세가 75명 (32.5%), 50-64세가 56명 (24.2%), 40-49세가 51명 (22.1%), 30-39세가 49명 (21.2%) 순이었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99명 (42.9%), 대학원 이상 79명 (34.2%), 고등학교 졸업 48명 (20.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51명 (22.2%), 사무직 49명 (21.3%), 서비스직이 32명 (13.9%) 순으로 조사되었고, 결혼 여부는 기혼이 100명 (48.1%), 미혼이 97명 (46.6%), 기타가 11명 (5.3%)이었다. 가족 구성원은 2명이 55명 (23.7%)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이 54명 (23.3%), 3명이 47명 (20.3%)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235)

Variables	Frequency
Nation	
US	115 (48.9)
Japan	120 (51.1)
Gender	
Men	77 (33.6)
Women	150 (65.5)
Others	2 (0.9)
Age	
20-29	75 (32.5)
30-39	49 (21.2)
40-49	51 (22.1)
50-64	56 (24.2)
Academic background	
Middle school or lower	5 (2.1)
High school diploma	48 (20.8)
Some college	99 (42.9)
College degree of higher	79 (34.2)
Job	
Student	51 (22.2)
Homemaker	25 (10.9)
General office worker	49 (21.3)
Government service	7 (3.0)
Private business	21 (9.1)
Professional	29 (12.6)
Sales/service	32 (13.9)
Production worker	2 (0.9)
Others	14 (6.1)
Marital status	
Single	100 (48.1)
Married	97 (46.6)
Others	11 (5.3)
Family member	
1 person	54 (23.3)
2 people	55 (23.7)
3 people	49 (21.1)
4 people	47 (20.3)
5 people	22 (9.5)
More than 6 people	5 (2.1)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건강관심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건강관심도의 유형화와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의 요인추출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직각 회전의 Varimax 회전 방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과정에서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는 0.5 이상이며, 고유값이 1.0보다 큰 요인에 한하여 요인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aiser-Meyer-Olkin (KMO) 값이 0.765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Bartlett's sphericity test)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관심도 측정을 위한 8가지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2.534%였다.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나는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4.30 ± 2.11)', '내가 먹는 음식의 건강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 (5.34 ± 1.33)',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4.30 ± 2.11)',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은 중요하다 (4.81 ± 1.51)'로 이를 '영양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나는 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4.83 ± 1.39)^R', '어떤 음식이 나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먹는다 (4.95 ± 1.21)^R', '간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4.09 ± 1.76)^R', '음식 선택에 있어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3.94 ± 1.74)^R로 이를 '기호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 알파 값을 측정한 결과 '영양 추구형'은 0.792, '기호 추구형'은 0.756으로 나타나 요인의 집합된 항목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제거했을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는 항목은 없어 모든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2.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General Health Interest variable (n = 235)

Items ¹⁾	M ± SD	Factor		Communality	Cronbach's α
		Nutrition-seeking type	Preference-seeking type		
I always follow a healthy and balanced diet.	4.30 ± 2.11	0.783		0.647	
I am very particular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 I eat.	5.34 ± 1.33	0.781		0.648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iet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4.30 ± 2.11	0.774		0.612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iet is low in fat.	4.81 ± 1.51	0.769		0.616	
I eat what I like and I do not worry much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 ^R	4.83 ± 1.39		0.846	0.720	0.747
I do not avoid any foods, even if they may raise my cholesterol. ^R	4.95 ± 1.21		0.836	0.709	
The healthiness of snacks makes no differences to me. ^R	4.09 ± 1.76		0.793	0.634	
The healthiness of food has little impact on my food choices. ^R	3.94 ± 1.74		0.532	0.416	
Eigen value		2.564	2.438		
Variance (%)		32.054	30.480		
Cronbach's α		0.792	0.756		
KMO			0.765		
Total % of variance			62.534		
Bartlett's sphericity test			588.668		
Sig.			0.000		

KMO, Kaiser-Meyer-Olkin.

¹⁾1: strongly dis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7: strongly agree.

^RReverse coding.

식품선택 동기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식품선택 동기의 유형화와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의 요인추출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직각 회전의 Varimax 회전 방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KMO 값이 0.922로 나타나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2.181%였다. 첫 번째 요인은 ‘평상시 자연적인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4 ± 1.29)’, ‘평상시 건강을 유지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39 ± 1.26)’, ‘평상시 지방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6 ± 1.35)’, ‘평상시 열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4 ± 1.35)’, ‘평상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30 ± 1.27)’, ‘평상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1

Table 3.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food choice motive variable (n = 235)

Items ¹⁾	M ± SD	Factor				Communality	Cronbach's α
		Health	Efficiency	Value	Mood		
It is important to me that the food I eat on a normal day...							
...contains natural ingredients	5.14 ± 1.29	0.722				0.644	
...keeps me healthy	5.39 ± 1.26	0.708				0.638	
...is low in fat	4.86 ± 1.35	0.688				0.670	
...is low in calories	4.84 ± 1.35	0.675				0.608	
...is nutritious	5.30 ± 1.27	0.673				0.641	
...is high in fiber and roughage	5.01 ± 1.20	0.670				0.640	
...contains no additives	4.90 ± 1.36	0.631				0.550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5.07 ± 1.20	0.585				0.700	
...is easily available in shops and supermarkets	5.14 ± 1.36		0.746			0.705	
...is not expensive	5.00 ± 1.29		0.682			0.560	
...is good value for money	5.19 ± 1.24		0.665			0.702	
...is easy to prepare	5.09 ± 1.35		0.634			0.450	
...takes no time to prepare	5.01 ± 1.30		0.618			0.530	
...is familiar	5.03 ± 1.28		0.585			0.605	0.951
...tastes good	5.68 ± 1.22		0.577			0.560	
...has a pleasant texture	5.11 ± 1.29			0.750		0.689	
...smells nice	4.99 ± 1.30			0.685		0.633	
...helps me relax	4.88 ± 1.25			0.635		0.707	
...looks nice	4.80 ± 1.34			0.616		0.682	
...is packaged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4.95 ± 1.29			0.590		0.574	
...is high in protein	5.05 ± 1.30			0.576		0.645	
...helps me control my weight	4.84 ± 1.31			0.555		0.512	
...make me feel good	5.28 ± 1.27			0.458		0.562	
...has the country of origin clearly marked	4.90 ± 1.48				0.774	0.740	
...comes from countries I approve of politically	4.50 ± 1.55				0.661	0.579	
...helps me to cope with life	5.12 ± 1.23				0.628	0.592	
...is what I usually eat	5.10 ± 1.24				0.622	0.670	
Eigen value		5.119	4.405	4.394	2.871		
Variance (%)		18.961	16.315	16.274	10.631		
Cronbach's α		0.901	0.862	0.900	0.756		
KMO					0.922		
Total % of variance					62.181		
Bartlett's sphericity test				3,681.395			
Sig.				0.000			

KMO, Kaiser-Meyer-Olkin.

¹⁾1: strongly dis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7: strongly agree.

± 1.20); ‘평상시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90 ± 1.36)’, ‘평상시 비타민과 미네랄 함유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7 ± 1.20)’로 이를 ‘건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평상시 일반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4 ± 1.36)’, ‘평상시 비싸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0 ± 1.29)’, ‘평상시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9 ± 1.24)’, ‘평상시 준비가 쉬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9 ± 1.35)’, ‘평상시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1 ± 1.30)’, ‘평상시 친숙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3 ± 1.28)’, ‘평상시 맛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68 ± 1.22)’로 소비자가 투자한 시간 대비 맛이 훌륭하거나 조리과정이 간편한 제품을 찾는 요소로 이는 ‘효율성’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평상시 씹히는 느낌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1 ± 1.29)’, ‘평상시 냄새가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99 ± 1.30)’, ‘평상시 휴식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8 ± 1.25)’, ‘평상시 모양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0 ± 1.34)’, ‘평상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포장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95 ± 1.29)’, ‘평상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5 ± 1.30)’, ‘평상시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4 ± 1.31)’, ‘평상시 기분 좋게 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28 ± 1.27)’로 추구하는 식품의 관능적 특성 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관을 포괄하고 있어 ‘가치’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평상시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게 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90 ± 1.48)’, ‘평상시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나라에서 온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50 ± 1.55)’, ‘평상시 생활에 활력을 주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2 ± 1.23)’, ‘평상시 즐겨 먹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0 ± 1.24)’로 ‘기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알파 값을 측정된 결과 요인 1은 0.901, 요인 2는 0.862, 요인 3은 0.900, 요인 4는 0.756으로 나타나 요인의 집합된 측정 항목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이 높았으며, 제거했을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는 항목은 없어 모든 항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비자의 건강관심도 유형 분석

건강관심도 유형을 기준으로 집단별 요인점수 평균값인 군집의 중심점 (cluster centroid)을 통하여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에 따라 건강관심도 속성과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01$), 이 결과를 기준으로 대표성있는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군집 1은 ‘나는 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6.06 ± 1.01)RD, ‘어떤 음식이 나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먹는다 (5.82 ± 1.11)RD, ‘간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5.61 ± 1.32)RD, ‘음식 선택에 있어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5.52 ± 2.12)RD에서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62명이 해당되었다. 군집 2는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6.14 ± 0.91)’, ‘내가 먹는 음식의 건강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 (6.09 ± 0.94)’,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5.91 ± 1.11)’,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은 중요하다 (6.27 ± 1.07)’에서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영양 균형 지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체 응답

Table 4. Result of cluster analysis for General Health Interest (n = 235)

Factor ¹⁾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F-value ^{***}
	Healthy dietary life-seeking group (n = 62)	Nutrition balance-seeking group (n = 58)	Health indifference group (n = 107)	
Factor 1: nutrition-seeking type	5.23 ± 0.83 ^a	6.10 ± 0.75 ^b	4.25 ± 0.67 ^c	123.939
I always follow a healthy and balanced diet.	4.92 ± 1.18 ^a	6.14 ± 0.91 ^b	4.07 ± 1.17 ^c	65.838
I am very particular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 I eat.	6.03 ± 1.19 ^a	6.09 ± 0.94 ^a	4.56 ± 1.10 ^b	53.681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iet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5.11 ± 0.98 ^a	5.91 ± 1.11 ^b	4.34 ± 1.01 ^c	45.337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iet is low in fat.	4.87 ± 1.32 ^a	6.27 ± 1.07 ^b	4.05 ± 1.15 ^c	66.835
Factor 2: preference-seeking type	5.75 ± 0.75 ^a	2.45 ± 1.03 ^b	4.01 ± 0.60 ^c	278.584
I eat what I like and I do not worry much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 ^R	6.06 ± 1.01 ^a	2.26 ± 1.64 ^b	3.73 ± 1.10 ^c	146.706
I do not avoid any foods, even if they may raise my cholesterol. ^R	5.82 ± 1.11 ^a	2.33 ± 1.32 ^b	3.76 ± 1.11 ^c	136.238
The healthiness of snacks makes no differences to me. ^R	5.61 ± 1.32 ^a	3.14 ± 2.14 ^b	3.75 ± 1.11 ^c	46.996
The healthiness of food has little impact on my food choices. ^R	5.52 ± 2.12 ^a	2.07 ± 1.42 ^b	4.80 ± 1.42 ^c	75.811
Total	5.49 ± 0.56 ^a	4.28 ± 0.57 ^b	4.13 ± 0.46 ^b	144.98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¹⁾1: strongly dis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7: strongly agree.

^{a,b,c}Scheffe's multiple range test; ^RReverse coding.

^{***}p < 0.001.

자 중 107명이 속하였는데, ‘나는 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3.73 ± 1.10)^R’, ‘어떤 음식이 나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먹는다 (3.76 ± 1.11)^R’, ‘간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3.75 ± 1.11)^R’, ‘음식 선택에 있어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4.80 ± 1.42)^R’에서는 중간 정도의 값을 보이고 ‘나는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4.07 ± 1.17)’, ‘내가 먹는 음식의 건강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 (4.56 ± 1.10)’,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4.34 ± 1.01)’,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은 중요하다 (4.05 ± 1.15)’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나 ‘건강 무관심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건강관심도에 따른 소비자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심도에 따라 국가 (p < 0.001), 성별 (p < 0.001), 연령 (p < 0.01), 교육 수준 (p < 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에서 국가는 일본 39명 (62.9%), 성별은 여자 43명 (74.1%), 연령대는 50-64세 20명 (33.3%)으로 다른 군집보다 연령대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31명 (51.7%)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영양 균형 지향 집단’은 국가는 미국 46명 (79.3%), 성별은 남성 30명 (51.7%)이고, 여성이 28명 (48.3%)으로 유사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는 30-39세 20명 (35.1%), 교육 수준은 대학원 이상이 33명 (56.9%)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건강 무관심 집단’은 국가는 일본 65명 (60.7%), 성별은 남성 72명 (68.6%), 연령대는 20-29세 42명 (39.6%)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연령층이 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49명 (46.2%)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5. Cluster difference by demographic of consumer groups on General Health Interest (n = 235)

Variables	Frequency			Total	χ^2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Healthy dietary life-seeking group (n = 62)	Nutrition balance-seeking group (n = 58)	Health indifference group (n = 107)		
Nation					28.908***
US	23 (37.1)	46 (79.3)	42 (39.3)	111 (48.9)	
Japan	39 (62.9)	12 (20.7)	65 (60.7)	116 (51.1)	
Gender					12.686***
Men	15 (25.9)	30 (51.7)	31 (29.5)	76 (34.4)	
Women	43 (74.1)	28 (48.3)	72 (68.6)	143 (64.7)	
Others	0 (0.0)	0 (0.0)	2 (1.9)	2 (0.9)	
Age					20.391**
20-29	17 (28.3)	11 (19.3)	42 (39.6)	70 (31.4)	
30-39	6 (10.1)	20 (35.1)	23 (21.7)	49 (22.0)	
40-49	17 (28.3)	16 (28.1)	17 (16.1)	50 (22.4)	
50-64	20 (33.3)	10 (17.5)	24 (22.6)	54 (24.2)	
Academic background					22.249**
Middle school or lower	0 (0.0)	2 (3.4)	3 (2.9)	5 (2.2)	
High school diploma	10 (16.6)	7 (12.1)	28 (26.4)	45 (20.1)	
Some college	31 (51.7)	16 (27.6)	49 (46.2)	96 (42.9)	
College degree of higher	19 (31.7)	33 (56.9)	26 (24.5)	78 (34.8)	
Job					17.740
Student	8 (13.3)	13 (22.4)	25 (23.8)	46 (20.6)	
Homemaker	7 (11.7)	5 (8.6)	13 (12.4)	25 (11.2)	
General office worker	17 (28.3)	10 (17.2)	22 (21.0)	49 (22.0)	
Government service	1 (1.7)	3 (5.2)	3 (2.9)	7 (3.1)	
Private business	7 (11.7)	8 (13.8)	5 (4.8)	20 (9.0)	
Professional	9 (15.0)	11 (19.0)	9 (8.6)	29 (13.0)	
Sales/service	8 (13.3)	5 (8.6)	18 (17.1)	31 (13.9)	
Production worker	0 (0.0)	1 (1.8)	1 (0.8)	2 (0.9)	
Others	3 (5.0)	2 (3.4)	9 (8.6)	14 (6.3)	
Marital status					3.781
Single	34 (57.6)	21 (41.2)	40 (44.0)	95 (47.3)	
Married	22 (37.3)	27 (52.9)	46 (50.5)	95 (47.3)	
Others	3 (5.1)	3 (5.9)	5 (5.5)	11 (5.4)	
Family member					11.326
1 person	14 (23.7)	10 (17.2)	27 (25.2)	51 (22.8)	
2 people	12 (20.3)	17 (29.3)	25 (23.4)	54 (24.1)	
3 people	16 (27.1)	9 (15.5)	21 (19.6)	46 (20.5)	
4 people	8 (13.6)	17 (29.3)	21 (19.6)	46 (20.5)	
5 people	8 (13.6)	5 (8.7)	9 (8.4)	22 (9.8)	
More than 6 people	1 (1.7)	0 (0.0)	4 (3.8)	5 (2.3)	
Total	62 (100)	58 (100)	107 (100)	235 (100)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p < 0.01; *p < 0.001.

건강관심도에 따른 소비자 군집별 식품선택 동기 분석

조사 대상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소비자 군집별 식품선택 동기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5$, $p < 0.01$, $p < 0.001$), 특히 건강 무관심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식품선택 동기의 4가지 요인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6). 군집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집단 모두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 대비하여 맛이나 조리 시간 등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에서는 건강 (5.33 ± 0.85)과 효율성 (5.02 ± 0.99)이 주요 식품선택 동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상시 맛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97 ± 1.02)', '평상시 건강을 유지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90 ± 1.08)'가 상위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평상시 정치적으로 인정

Table 6. Cluster difference by food choice motivation of consumer groups on General Health Interest (n = 235)

Factor ¹⁾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F-value
	Healthy dietary life-seeking group (n = 62)	Nutrition balance-seeking group (n = 58)	Health indifference group (n = 107)	
It is important to me that the food I eat on a normal day...				
Factor 1: health	5.33 ± 0.85 ^a	5.78 ± 0.90 ^b	4.52 ± 0.78 ^c	47.637 ^{***}
...contains natural ingredients	5.34 ± 1.23 ^a	5.74 ± 1.17 ^a	4.70 ± 1.20 ^b	14.781 ^{***}
...keeps me healthy	5.90 ± 1.08 ^a	5.90 ± 1.22 ^a	4.79 ± 1.15 ^c	25.905 ^{***}
...is low in fat	4.95 ± 1.19 ^a	5.72 ± 1.19 ^b	4.35 ± 1.13 ^c	25.177 ^{***}
...is low in calories	5.13 ± 1.25 ^a	5.74 ± 1.25 ^b	4.21 ± 1.12 ^c	34.145 ^{***}
...is nutritious	5.66 ± 1.07 ^a	5.91 ± 1.11 ^a	4.73 ± 1.25 ^b	23.237 ^{***}
...is high in fiber and roughage	5.13 ± 1.06 ^a	5.70 ± 1.15 ^b	4.53 ± 1.09 ^c	21.677 ^{***}
...contains no additives	5.27 ± 1.34 ^a	5.69 ± 1.10 ^a	4.25 ± 1.16 ^b	30.921 ^{***}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5.23 ± 1.08 ^a	5.81 ± 1.13 ^b	4.57 ± 1.09 ^c	24.816 ^{***}
Factor 2: efficiency	5.02 ± 0.99 ^a	5.79 ± 0.80 ^b	4.89 ± 0.85 ^a	20.677 ^{***}
...is easily available in shops and supermarkets	5.06 ± 1.39 ^a	5.67 ± 1.13 ^b	4.89 ± 1.41 ^a	6.589 ^{**}
...is not expensive	4.50 ± 1.36 ^a	5.84 ± 1.02 ^b	4.81 ± 1.13 ^a	22.005 ^{***}
...is good value for money	5.08 ± 1.25 ^a	5.81 ± 1.10 ^b	4.90 ± 1.22 ^a	11.252 ^{***}
...is easy to prepare	4.87 ± 1.50 ^a	5.81 ± 1.23 ^b	4.80 ± 1.18 ^a	12.601 ^{***}
...takes no time to prepare	4.74 ± 1.44 ^a	5.67 ± 1.23 ^b	4.79 ± 1.14 ^a	11.120 ^{***}
...is familiar	4.89 ± 1.34 ^a	5.75 ± 1.14 ^b	4.69 ± 1.12 ^a	15.291 ^{***}
...tastes good	5.97 ± 1.02 ^a	5.97 ± 1.06 ^a	5.34 ± 1.34 ^b	7.817 ^{***}
Factor 3: value	4.92 ± 0.86 ^a	5.71 ± 1.02 ^b	4.62 ± 0.84 ^a	27.958 ^{***}
...has a pleasant texture	5.02 ± 1.27 ^a	5.83 ± 1.20 ^b	5.10 ± 1.30 ^a	14.830 ^{***}
...smells nice	4.89 ± 1.27 ^a	5.82 ± 1.24 ^b	4.60 ± 1.18 ^a	18.904 ^{***}
...helps me relax	4.76 ± 1.24 ^a	5.66 ± 1.22 ^b	4.52 ± 1.11 ^a	17.899 ^{***}
...looks nice	4.40 ± 1.38 ^a	5.57 ± 1.33 ^b	4.60 ± 1.18 ^a	14.806 ^{***}
...is packaged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4.79 ± 1.32 ^a	5.66 ± 1.12 ^b	4.65 ± 1.20 ^a	13.541 ^{***}
...is high in protein	5.10 ± 1.11 ^a	5.81 ± 1.36 ^b	4.57 ± 1.17 ^c	20.079 ^{***}
...helps me control my weight	4.84 ± 1.04 ^a	5.66 ± 1.37 ^b	4.35 ± 1.20 ^a	21.770 ^{***}
...make me feel good	5.52 ± 1.16 ^a	5.65 ± 1.37 ^a	4.90 ± 1.20 ^b	8.579 ^{***}
Factor 4: mood	4.79 ± 1.00 ^a	5.41 ± 1.19 ^b	4.70 ± 0.92 ^a	9.733 ^{***}
...has the country of origin clearly marked	5.00 ± 1.48 ^a	5.41 ± 1.41 ^b	4.62 ± 1.39 ^a	5.943 ^{**}
...comes from countries I approve of politically	4.15 ± 1.58 ^a	5.25 ± 1.54 ^b	4.30 ± 1.40 ^a	9.839 ^{***}
...helps me to cope with life	5.18 ± 1.27 ^a	5.41 ± 1.31 ^b	4.89 ± 1.13 ^a	3.663 [*]
...is what I usually eat	4.82 ± 1.21 ^a	5.53 ± 1.25 ^b	4.98 ± 1.22 ^a	5.733 ^{**}
Total	5.04 ± 0.77 ^a	5.70 ± 0.86 ^b	4.67 ± 0.68 ^c	35.213 ^{***}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¹⁾1: strongly dis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7: strongly agree.

^{a,b,c}Scheffe'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온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15 ± 1.58)', '평상시 모양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40 ± 1.38)'는 하위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이 집단은 식품 선택 시 외적 요인보다 식품의 내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양 균형 지향 집단에서는 효율성 (5.79 ± 0.80)과 건강 (5.78 ± 0.90)이 주요 식품구매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맛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97 ± 1.06)', '평상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91 ± 1.11)'가 상위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평상시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나라에서 온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25 ± 1.54)'와 '평상시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게 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41 ± 1.41)', '평상시 생활에 활력을 주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41 ± 1.31)'가 하위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과 유사하게 외적 요인보다 식품의 내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로 식품의 영양적인 측면이 식품선택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과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건강 무관심 집단에서는 효율성 (4.89 ± 0.85)과 기분 (4.70 ± 0.92)의 식품선택 동기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평상시 맛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34 ± 1.34)', '평상시 씹히는 느낌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0 ± 1.30)'가 특히 상위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항목으로는 '평상시 열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21 ± 1.12)', '평상시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25 ± 1.16)'가 조사되었다. 이 집단은 식품 선택 시 감각적인 쾌락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다른 두 집단과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고찰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관심도에 따른 식품선택 동기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소비트렌드를 파악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분류된 식품선택 동기는 크게 건강, 효율성, 가치, 기분 네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초기 선행 연구에서 Steptoe 등 [3]은 건강, 기분, 편의성, 감각, 천연 식품, 가격, 체중 조절, 친숙성, 윤리적 관심 등 9개의 식품선택 동기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시대적, 문화적, 환경적, 세대적 차이에 기인하여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요인이 추출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8]. 이러한 동기는 소비자의 식품선택에도 주로 적용되며 소비자는 맛, 가격, 이용 경험 등 다양한 식품선택 동기요인과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해 식품을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6].

건강관심도에 대한 소비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에 속한 소비자의 건강관심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Yoo와 Jeong [27]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수준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30%는 고관심형, 중간 40%를 일반형, 하위 30%를 저관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건강관심 유형에 따라 고관심형일수록 건강관심도에 대한 모든 문항에 대해 관심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외식 소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28], 건강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Sun [30]의 대만 소비자 대상 연구결과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주요 식품선택 동기가 건강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관심도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에서 일본 여성 50-64세 소비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 무관심 집단에서는 일본 남성 20-29세 소비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개인의 건강과 웰빙을 인지하고 우려하는 집단이며,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유기농 식품을 포함한 보다 건강하고 자연적인 식품인 과일, 채소, 저지방 대체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16,31]. 이처럼 전반적인 건강관심도가 식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32],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는 건강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식품영양 시장에서 타겟 소비자층이 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성을 강

조하고, 식품선택에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여 해당 국가의 외식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영양 균형 지향 집단’과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주로 ‘효율성’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 또는 시간 대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에 있어 기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올바른 식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건강관심도에 따라 [33] 식품선택 동기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사대상자를 미국 뉴욕과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표본화하여 전체 시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 식품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4-37]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채식주의자와 같은 특정한 집단의 식품 소비행동 특성을 조사하여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을 타깃시장으로 선정하여 건강관심도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분석과 식품선택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마케팅 전략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국가의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미국 115명, 일본 120명의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 (ver.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체 소비자의 군집별 미국과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관심도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분석과 식품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관심도에 따라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 ‘영양 균형 지향 집단’, ‘건강 무관심 집단’으로 군집을 나누었으며, 건강관심도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국가,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관심도 집단별 식품선택 동기의 결과로는 건강 무관심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건강, 효율성, 가치, 기분 4가지 요인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군집에 따라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집단 모두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 대비하여 맛이나 조리시간 등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식품선택 동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소비에 있어 투자한 시간이나 자산대비 더 높은 만족감을 얻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미국과 일본 소비자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국가의 외식시장 진입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제품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미국과 일본 소비자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REFERENCES

1. Kim HR, Kim SU. Dietary guidelines for the WHO, the US and Japa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Welf Policy Forum* 2016; (234): 81-93.
[PUBMED](#) | [CROSSREF](#)
2.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R). Status of the market for each processed food item: source market. Sejong: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8.
3. Steptoe A, Pollard TM, Wardle J.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motives underlying the selection of food: the food choice questionnaire. *Appetite* 1995; 25(3): 267-284.
[PUBMED](#) | [CROSSREF](#)
4. Shepherd R. Social determinants of food choice. *Proc Nutr Soc* 1999; 58(4): 807-812.
[PUBMED](#) | [CROSSREF](#)
5. Park SJ, You SY. A study of the effect of health motivation and environmental concern on choosing organic food. *J Consum Cult* 2007; 10(4): 107-126.
[CROSSREF](#)
6. Cha MH, Kim YK.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s of organic foods in relation to the perceived health concerns, healthy eating practices and attitudes, and food choice motives. *Korean J Community Nutr* 2009; 14(3): 286-294.
7. Kim DK, Kim SJ, Lee KH. The effect of food choice motive on attitude and intention of purchasing organic food. *Korean J Food Cult* 2011; 26(5): 506-512.
[CROSSREF](#)
8. Kim SA, Hong WS. The effect of food choice motive on consumption attitude, satisfaction, and purchase intention for traditional fermented foods in the twenties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and satisfaction). *J Korean Soc Food Sci Nutr* 2019; 48(4): 482-493.
[CROSSREF](#)
9. Becker MH, Maiman LA, Kirscht JP, Haefner DP, Drachman RH.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diction of dietary compliance: a field experiment. *J Health Soc Behav* 1977; 18(4): 348-366.
[PUBMED](#) | [CROSSREF](#)
10. Pender NJ, Murdaugh CL, Parsons MA.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6th edition. Hoboken (NJ): Pearson; 2011.
11. Noh JH. Difference in health concerns, nutrition knowledge and eating habit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Konkuk University; 2009.
12. Lee SY, Kim IH, Jang J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oncern and purchase behavior of the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Korean J Local Gov Adm Stud* 2011; 25(1): 77-100.
[PUBMED](#) | [CROSSREF](#)
13. Roininen K, Lähteenmäki L, Tuorila H. Quantification of consumer attitudes to health and hedonic characteristics of foods. *Appetite* 1999; 33(1): 71-88.
[PUBMED](#) | [CROSSREF](#)
14. Wedel M, Kamakura WA. Market segmentati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New York: Springer US; 2000.
15. Hughner RS, McDonagh P, Prothero A, Shultz CJ, Stanton J. Who are organic food consumers? A compilation and review of why people purchase organic food. *J Consum Behav* 2007; 6(2-3): 94-110.
[CROSSREF](#)
16. Michaelidou N, Hassan LM. The role of health consciousness, food safety concern and ethical identity on attitudes and intentions towards organic food. *Int J Consum Stud* 2008; 32(2): 163-170.
[CROSSREF](#)
17. Tarkiainen A, Sundqvist S. Subjective norms, attitudes and intentions of Finnish consumers in buying organic food. *Br Food J* 2005; 107(11): 808-822.
[CROSSREF](#)
18. Tobler C, Visschers VH, Siegrist M. Eating green. Consumers' willingness to adopt ecological food consumption behaviors. *Appetite* 2011; 57(3): 674-682.
[PUBMED](#) | [CROSSREF](#)
19. Gagić S, Jovičić A, Tešanović D, Kalenjuk B. Motives for food choice among Serbian consumers. *Econ Agric* 2014; 61(1): 41-51.
[CROSSREF](#)
20. Januszewska R, Pieniak Z, Verbeke W. Food choice questionnaire revisited in four countries. Does it still measure the same? *Appetite* 2011; 57(1): 94-98.
[PUBMED](#) | [CROSSREF](#)

21. Lindeman M, Väänänen M. Measurement of ethical food choice motives. *Appetite* 2000; 34(1): 55-59.
[PUBMED](#) | [CROSSREF](#)
22. Markovina J, Stewart-Knox BJ, Rankin A, Gibney M, de Almeida MD, Fischer A, et al. Food4Me study: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ood choice questionnaire in 9 European countries. *Food Qual Prefer* 2015; 45: 26-32.
[CROSSREF](#)
23. Jáuregui-Lobera I, Bolaños Ríos P. What motivates the consumer's food choice? *Nutr Hosp* 2011; 26(6): 1313-1321.
[PUBMED](#)
24. Eertmans A, Victoir A, Notelaers G, Vansant G, Van den Bergh O. The food choice questionnaire: factorial invariant over western urban populations? *Food Qual Prefer* 2006; 17(5): 344-352.
[CROSSREF](#)
25. Kwon MW, Rhee KC. Variables affecting on the rationality of consumption behavior of adolescent consumers. *J Korean Home Manage Assoc* 2000; 18(2): 175-190.
26. Chen MF.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in relation to organic foods in Taiwan: moderating effects of food-related personality traits. *Food Qual Prefer* 2007; 18(7): 1008-1021.
[CROSSREF](#)
27. Yoo JN, Jeong HS. Consumer awareness of nutrition labelling in restaurants according to level of health consciousness. *Korean J Food Nutr* 2011; 24(3): 282-290.
[CROSSREF](#)
28. Choi MK. An analysis of groups with diet problems associated with dining out. *Korean J Food Nutr* 2008; 21(4): 536-544.
29. Newsom JT, McFarland BH, Kaplan MS, Huguet N, Zani B. The health consciousness myth: implications of the near independence of major health behaviors in the North American population. *Soc Sci Med* 2005; 60(2): 433-437.
[PUBMED](#) | [CROSSREF](#)
30. Sun YH. Health concern, food choice motives, and attitudes toward healthy eating: the mediating role of food choice motives. *Appetite* 2008; 51(1): 42-49.
[PUBMED](#) | [CROSSREF](#)
31. Park SH, Yoon HJ, Cho SH, Haugtvedt CP. Assessing the provision of nutritional information on quick service restaurant menu item choices for college students. *J Foodserv Bus Res* 2013; 16(4): 329-346.
[CROSSREF](#)
32. DiPietro RB, Remar D, Parsa HG. Health consciousness, menu information, and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 Foodserv Bus Res* 2016; 19(5): 497-513.
[CROSSREF](#)
33. Mai R, Hoffmann S. How to combat the unhealthy = tasty intuition: the influencing role of health consciousness. *J Public Policy Mark* 2015; 34(1): 63-83.
[CROSSREF](#)
34. Furnham A. Are modern health worries, personality and attitudes to science associated with the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Br J Health Psychol* 2007; 12(2): 229-243.
[PUBMED](#) | [CROSSREF](#)
35. Kaptein AA, Helder DI, Kleijn WC, Rief W, Moss-Morris R, Petrie KJ. Modern health worries in medical students. *J Psychosom Res* 2005; 58(5): 453-457.
[PUBMED](#) | [CROSSREF](#)
36. Petrie KJ, Sivertsen B, Hysing M, Broadbent E, Moss-Morris R, Eriksen HR, et al. Thoroughly modern worries: the relationship of worries about modernity to reported symptoms, health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J Psychosom Res* 2001; 51(1): 395-401.
[PUBMED](#) | [CROSSREF](#)
37. Petrie KJ, Broadbent EA, Kley N, Moss-Morris R, Horne R, Rief W. Worries about modernity predict symptom complaints after environmental pesticide spraying. *Psychosom Med* 2005; 67(5): 778-782.
[PUBMED](#) | [CROSSREF](#)